

이용수 할머니 “日 한복판에 소녀상 세워야”...정의연 만나 논의

수요시위 방식의 변화 있어야...방향성 대해 논의

이 할머니 “직접 참여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수요시위와 함께 ‘평화의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일본 동경 한복판에도 세워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최근 대구 남구의 전통찻집인 죽령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등 위안부 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할머니와 정의연·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국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 이사장과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송도자 일본군위안부 인권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수요시위에 대해 여전히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다만 수요시위 방식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 할머니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수요시위를 지지하지만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생존 유무에 상관없이 단체가 있는 지역에 가서 수요시위를 하자”며 “상징적으로 지역 단체가 있는 창원, 부산, 통영, 거제에서 우선 진행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 자신의 시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접 참여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의소녀상 세우기 운동은 소녀상을 일본 동경 한복판에 세울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평화의소녀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위안부 피해를 포함한 역사 교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호 기자



최근 대구의 한 전통찻집인 죽령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만났다.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이경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모친상 당한 안희정, 일시 석방될까...오늘 심사위서 결정

코로나19 변수로 허가여부 불투명...내일 오전 발인

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총남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은 ‘수형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특별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 교도소에서 열리며 결론은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가 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



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최이슬 기자



지난 2일 경북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김도 감독(오른쪽). 김 감독은 인사위에서 선수들에 대한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 최숙현 폭행사건...선수들 ‘감독 폭행’ 폭로 예고

오늘 국회서 기자회견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팀 감독에 대한 폭행 폭로를 예고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5일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에 따르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독 김모씨가 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폭로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김 감독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자신들이 폭행당했던 당시 상황을 정리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 기자

앞서 선수들은 지난 4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 모여 기자회견에서 폭로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주시청에서 다른 팀으로 옮겨간 한 선수는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감독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김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조사관 2명을 경주시체육회 등에 보내 김 감독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했다.

김민정 기자

성매매 업소에 대포 유심칩 800개 판매 법정구속

타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800여개의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1명에게 벌금 1000만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포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기간과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성매매 업소 등에 832회선의 대포 유심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선당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대포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는 2만원에서 5만원을 줬다.

최이슬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